

동학농민혁명 탐방길 2구간 마무리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 황토현전적지~고부 대외마을 7km 이팝나무 심고 관광객 쉼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2단계인 황토현 전적지에서 고부 대외마을로 이어지는 구간. 이 구간은 동학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곳곳에 유적이 산재해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행 탐방길의 2단계 구간 조성을 마무리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혁명유적지를 연결하는 역사기행 탐방길이 조성 중이며 이번에 황토현 전적지에서 고부 대외마을까지 7km 구간의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구간은 이평 만석보터-전봉준 장군 단소, 두 번째 구간은 정읍 황토현 전적-고부 대외마을, 세 번째 구간은 정읍 황토현 전적-이평 말목장터까지다.

이번에 마무리된 두 번째 구간에는 동학의 상징인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

또 동학 주요 유적지에 종합 안내판을 설치했고, 대외마을에 약 1.5km 탐방로를 조성해 도보로 동학의 성지를 걸을 수 있도록 했다.

고부 대외마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담긴 유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발통문 작성지와 동학농민혁명 묘의탑,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중요한 장소다.

또 대외마을은 대외(竹山)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뒤편에는 울창한 대나무와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마을의 유적지를 방문 후 뒷산에 조성된 산책로

를 걸으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숨결과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탐방길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동학의 다수 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배우고 가치를 깨닫는 현장 체험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순창군 가축분 퇴비 활용 농업 연구 본격화

순창군이 가축분퇴비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경축순환 농업 연구를 본격화한다.

이번 연구는 콩 재배지 가축분 퇴비 사용 효과 검정을 위해 가축분 입상퇴비, 가축분 분상퇴비, 유박비료(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처리구의 생육·수량성 등을 비교한다.

군은 지난 6월 실증포장의 토양검정 시비량에 따라 전 처리구에 유기물 공급원으로 가축분 분상퇴비를 처리했다.

또 각 시험 처리구마다 콩 질소 표준시비량을 기

준으로 가축분 입상퇴비, 가축분 분상퇴비, 유박비료, 무기질비료 등을 각각 처리하고 3요소 부족분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콩 정식을 마쳤으며 처리구별 개화기(8월 상순 경)와 수확기(10월 중순 경) 생육조사, 식물체 분석, 수량성 조사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경축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주민 세무상담 '마을세무사제' 운영

남원시가 서민들의 정당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제'를 운영한다.

또 지방세 불복업무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함께 운영한다고 전했다.

세무상담과 선정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

은 시민은 관내 '이은숙 세무사사무소'나 '서호련 세무사사무소'에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지방세 불복사유가 발생해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여야 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반롱마을 '생생마을 콘테스트' 우수상 고창 신림면 반롱마을이 '제8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롱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돌담쌓기, 예술인 거리조성,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고, 2019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돌담 마실길 조성, 생태하천 정비, 반롱 돌담길 정비 등을 추진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안전·방역 특별점검

물놀이·화재·방역지침 준수 등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 96개소의 농촌관광시설 중 관광객 집중이 예상되는 상위 50%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

분야 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야별 안전·방역 주요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 시설 관리, 화재 안전 관리, 위생관리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토록 권고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조우삼 고창군 농어촌식품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여름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관광농원 1개소, 농어촌민박 88개소 등 모두 96개소의 농촌관광시설이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군산시 10일부터 시티투어버스 운행 재개

명소 50여곳 포토투어도 곧 시작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재개한다.

군산시는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는 주말 5개 코스로 나눠 진행한다. 주말에도 시내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사전 예약을 받아 버스를 운행한다. 소규모 인원의 관광 수요가 늘고 데이트 소형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산의 관광 명소 50여 곳에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주는 포토투어(사진)도 조만간 다시 실시한다.

앞서 시는 고군산군도의 섬들과 시간여행마을, 은파호수 등 46곳을 둘러보고 도장을 받으면 기념



품을 주는 스탬프투어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 스탬프투어는 2019년 1만4,000명 이상이 참여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단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전국 최초 소 채혈검사 신청 앱 개발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소 채혈 검사 신청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선다.

정읍시는 소 거라나 도축장 출하 과정에서 필수인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한다.

앱은 농가와 채혈자(공수의)가 소 채혈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다. 농가는 이 앱을 통해 채혈 일자 등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앱은 축산 관련 동향과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감염병 예방관리 수칙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채혈 검사 신청 시 5초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익산시 생강 생산기반 조성 10억원 투입

익산시가 지역 내 생강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생강 농가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확 농기계 구입과 선별장, 저온 저장고 시설 지원 등 가공라인 시설을 구축하며 고품질 생강 생산과 소득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안정적 사업효과 창출과 효율적 지원

을 도모하기 위해 '생강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 품질이 뛰어난 왕궁 생강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특화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중 출하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왕궁지역은 현재 153여농가가 33ha의 재배면적을 통해 연간 495t의 생강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고소득 작목으로 연간 2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